

韓國에 있어서 『尚書』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陳亦伶(高麗大)

<목차>

1. 前言
2. 研究 現況
 - 2.1 中國 尚書 源流 研究
 - 2.2 韓國 書經學 研究
3. 未來 研究 展望
 - 3.1 역본의 연구
 - 3.2 학과별 연구
 - 3.3 문헌적 연구
 - 3.4 경연과 과거시험의 각 나라 비교 연구
4. 結語: 한국 尚書學 研究의 時代意義

초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가 경전은 적어도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었고, 『三國史記』를 보면 新羅때 太學 교육중에 한 과목이 『尚書』이었음이 명확히 보인다. 고려시대에 과거제도와 경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 지식인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교과목은 『尚書』였다. 『尚書』는 고대 정치제도 및 정치사상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경전이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통치자에 있어 중요한 施政方針의 根幹이 되었다. 따라서 『尚書』연구를 통해서 경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사상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경학 연구는 중국과 달리 전통적 四書五經 혹은 十三經이 아니라 “四書三經”이다. 또한 개별 경전에 대한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四書』에 대한 연구, 특히 『論語』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三經에 경우는 『周易』이나 『詩經』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尚書』에 대한 연구는 그 난이도 때문인지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성균관대학교에 발간한 『韓國經學資料集成』을 살펴보면, 한국 경학 저술 총 145권 가운데 『尚書』부분이 22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거의 6분의 1이 『尚書』관련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22권에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총 102명 유학자의 『尚書』저술 112種이 수록되어 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韓國經學資料集成·補遺』에서 수록할 예정인 20명 유학자의 25種 저술과 합하면, 총 122명, 137種이 된다. 이는 한국 『尚書』연구의 큰 寶庫라고 할 수 있다.

한국 『尚書』 학 연구는 3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중국 고전 『尚書』 原典에 대한 探究인데 이를 ‘중국 『尚書』 연구’ 라고 칭하였다. 둘째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서경 저술을 중점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 서경학 연구’라고 이름하였다. 셋째는 한국 이외 다른 나라 학자들의 조선시대 서경 저술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 3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온전한 한국 『尚書』 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학술총람』 과 工具書 전자 시스템에 수록된 19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 동안 韓國에서 발표된 『尚書』 관련 학술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 『尚書』 學 研究을 回顧하고 또 그 미래를 展望해 보도록 하겠다.

1. 前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가 경전은 적어도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었다.¹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新羅 때 太學 교육 중의 한 과목이 『尚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²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와 경연을 통해 고려 지식인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교과목 중 하나가 『尚書』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壬申誓記石」에도 『尚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³ 이러한 자료들은 『尚書』가 일찍이 조선 반도에 수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尚書』는 고대 정치제도 및 정치사상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경전이기에 때문에, 유가 사상의 발원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일본·베트남 등 인근나라에서

* 『尚書』는 중국 고대 최초의 역사 공문서로, 『書』·『書經』이라고도 칭해진다. 戰國時代에는 『書』라고 하였고 漢代부터 『尚書』로 칭해졌다. 『尚書』는 ‘上古之書(옛날의 책)’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大全本의 영향을 받았고 蔡沈의 『書集傳』을 기준으로 언해본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尚書』보다 『書經』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 하지만 본고는 조선시대에 채침의 영향을 받은 『書經』연구 뿐 아니라 현대 한국 학자들의 중국 『尚書』 연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尚書』로 칭하면서 본 논문을 작성하겠다.

¹ [後晉]劉昫:〈東夷列傳〉,《舊唐書》:「百濟國,本亦扶餘之別種,嘗為馬韓故地……其書籍有《五經》、子、史,又表疏並依中華之法。」,(北京:中華書局,1995年),頁5328-5329。

² 金富軾:《三國史記》卷9,新羅本紀第九「惠恭王元年」條:「元年,大赦。幸太學,命博士講尚書義。」

³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天前誓。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無誓。若此事失,天大罪得誓。若國不安大亂世,可容行誓之,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詩尚書禮傳倫得誓三年。

도 통치자에게 중요한 施政方針이 되었다. 따라서 『尙書』연구를 통해서 경서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사상도 알 수 있을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尙書』는 옛날 왕실의 양성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였으며, 또한 과거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왕실 뿐만 아니라 사대부나 평민들도 『尙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성균관대학교에 발간한 『韓國經學資料集成』을 살펴보면, 한국 경학 저술 총 145권 가운데 『尙書』부분이 22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거의 6분의 1이 『尙書』관련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22권에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총 102명 유학자의 『尙書』저술 112種이 수록되어 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韓國經學資料集成•補遺』에서 수록할 예정인 20명 유학자의 25種 저술과 합하면, 총 122명·137種이 된다. 이는 한국 『尙書』연구의 큰 寶庫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尙書』에 대한 연구 성과는 『四書』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尙書』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학술총람』과 工具書 전자 시스템에 수록된 190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의 100여 년 동안 韓國에서 발표된 『尙書』관련 학술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 『尙書』學 研究을 回顧하고 또 그 미래를 展望해 보도록 하겠다.

2. 研究 現況

필자는 한국에 있어서 『尙書』學 研究를 분석하기 위해, ‘尙書’, ‘書經’, ‘書集傳’, ‘蔡沈’, ‘問若璩’, ‘尙書 各篇 篇名’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각 전자시스템⁴에서 검

⁴김시준·서경호 編 『韓國 中國學 論著 目錄』, 서울:술출판사, 2001.; 大韓民國學術院編 『學術總覽』 第I輯 國語國文學篇, 第VI輯 史學篇, 第VIII輯 國語國文學補遺篇, 서울:大韓民國學術院,

색하였고, 아울러 한국 유학과 관련된 책을 참조하면서 韓國에서 발표된 『尚書』와 관련된 학술단행본(역주본 제외)·학위논문·학술지 논문 등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韓國에 있어서 『尚書』 연구 문헌목록」(아래에서는 「目錄」으로 略稱하겠다.)을 작성하였다.

이「目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尚書』연구 총 112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112편 연구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중국 고전 『尚書』 原典의 探究와 分析으로 총 55편이다. 또 하나는 高麗·朝鮮時代 유학자의 『尚書』 관련 저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총 57편이다. 한국 최초의 『尚書』 연구 논문은 1965년 黃義敦에 의해 이루어진 「書經의 解說」⁵인데, 이것은 『尚書』原典의 대한 분석과 해석이다. 이것은 중국 『尚書』學 研究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韓國 『尚書』學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는 1986년에 처음 나타난다. 10년을 기준으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年代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14
研究篇數	1	2	12	14	61	22

동아시아 각국에서 진행한 『尚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尚書』 연구는 주변 국가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된 편이었지만 그래도 점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 2001-2010년에 제출된 연구 성과는 前 10년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로 증가하였다. 또 2014년 현재 이미 前 10년 연구 성과의 3분의 1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은 『尚書』 原典 (즉 中國 『尚書』學)의 研究와 韓國 『尚書』學 研究 2종류로 나누어서 112편 논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66-1997 등 서지목록.

전자시스템: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riss.kr/index.do>);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학술교육원(<http://www.earticle.net/>); DBpia 학술정보통합서비스 (<http://www.dbpia.co.kr/>) 등.

⁵ 延世大學校 1987年 中語中文學科 석사논문.

⁶ 대만과 중국의 『尚書』 연구 논문과 저술은 林慶彰 주편

『經學研究論著目錄』 (1912-1987) • (1988-1992) • (1993-1997) • (1998-2002)을 통해 볼 때 2490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尚書』와 관련된 연구는 林慶彰·馮曉庭 주편

『日本研究經學論著目錄』 (1900-1992) • (1992-2012)을 통해 600여 편임을 알 수 있다.

2.1 중국 『尙書』 原典 연구

「목록」을 통해 보면 한국의 『尙書』 原典 연구자는 대부분 중문학과 소속이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중문학과 이성애 교수의 「尙書研究」, 국민대 중문학과 鄭煥鍾 교수의 「尙書 中 ‘德’의 연구」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의 필자는 모두 대만대학 중문학과 대학원 출신이다.

한국 중문학과에서 제출된 『尙書』 연구는 대개 2가지로 분류할 있다. 첫 번째는 『尙書』의 텍스트 내용 및 語言 詞彙 상의 탐구와 분석이다. 예를 들면, 김현철의 「尙書虛詞 研究」•유선영의 「『尙書』의 양태부사 고찰」•「《상서》에 나타난 어기부사(語氣副詞) 고찰」•「『尙書』에 보이는 정도부사 고찰」•김혜영의 「今文尙書와 古文尙書의 語法 比較研究」등이다. 두 번째는 政治나 사상 방면의 探究이다. 예를 들면, 권민균의 「前漢의 政治에서 『尙書』의 활용」•정병섭의 「한대 상서학의 성립과 정치적 의의」•유국충의 「『尙書』와 朱子の 政治觀」등이 있다. 경학 연구의 대표적인 工具書인 『經學研究論著目錄』에서는 尙書 研究 目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通論, 書序, 註釋翻譯, 注釋翻譯, 今文尙書, 古文偽古文, 尙書研究史, 札記, 語言文字研究, 分類研究, 逸洲書.

韓國에 있어서 『尙書』 原典 探究(中國 『尙書』學) 研究는 대부분 ‘語言文字研究’와 ‘政治思想’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語言文字研究’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마도 한국 중어중문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실용적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졸업생들이 깊이 있게 古典 學術 研究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2.2 韓國 書經學 연구

앞에서 언급한 「目錄」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 『尙書』學 연구를 제외하면 한국 『尙書』學 연구는 총 57편이며, 외국(중국)에서 외국 학자가 쓴 조선시대의 『尙書』 연구 6편을 더하면 총 63편이 된다. 이 63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학자별 연구’와 ‘尙書 篇目の 연구’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각 학자별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연구 대상	편수
麗末鮮初	權近(1352-1409)	4篇
朝鮮中期	李滉(1501-1570)	2篇
	趙翼(1579-1655)	1篇

	尹鑄(1617-1680)	2篇
朝鮮後期	朴世堂(1629-1703)	6篇
	李瀾(1681-1763)	3篇
	金鍾厚(?-1780)	1篇
	金鍾正(1722-1787)	1篇
	正祖(1752-1800)	2篇
	成海應(1760-1839)	1篇
	丁若鏞(1762-1836)	31篇
	徐有渠(1764-1845)	1篇
	洪奭周(1774-1842)	2篇
	洪吉周(1786-1841)	1篇
	金正喜(1786-1856)	1篇
	沈大允(1806-1872)	2篇

이상을 보면 역시 조선의 大儒 茶山 丁若鏞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논문이 제일 많음을 볼 수 있다. 31편 논문은 대개 다산 정약용의 『尙書』인식, 주희와 채침 주석의 수용과 비판, 다산의 저술(『尙書古訓』·『梅氏書平』·『尙書知遠錄』)의 체계와 구성 내용, 毛奇齡의 『古文尙書冤詞』에 대한 다산의 비판 등의 내용이다. 타 논문도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유학자)의 『尙書』 이해, 금고문의 대한 인식, 저술의 체재와 내용 구성, 경전 해석의 기본시각, 기존 주석서에 대한 수용과 비판 등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조선 후기 유학자 및 그의 저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외로 조선 전기에 관한 연구는 한 편도 없다. 즉 연구 대상이 불균형하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위 표에 언급된 徐有渠와 洪吉周의 尙書 研究는 『韓國經學資料集成』과 『補遺篇』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자세히 자료를 수집하면 더 많은 조선 유학자의 『尙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尙書』 각 편의 연구를 분석하자면 堯典 1篇, 大禹謨 2篇, 洪範 5篇, 甘誓 1篇, 武成 1篇, 泰誓 1篇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尙書』 각 편을 두루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특정 몇 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尙書』 각 편을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 유학자의 저술 중에서 『尙書』 관련 주요 문제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기존 학설을 검토하면서 각 유학자의 創見

을 밝혀내는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尙書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이유는 아마도 『尙書』 관련 문헌 정리가 뒤늦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1998년에 『韓國經學資料集成』이 출판되기 이전에는 학자들이 고려와 조선에 있는 『尙書』 관련 저술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1998년 이전에도 『尙書』 연구 논문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로 중국 『尙書』 학 연구이다. 순수한 조선시대 유학자의 저술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韓國經學資料集成』이 출판된 이후에 확실히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은 청나라 때의 『四庫全書』와 같은 대규모의 叢書가 없었기 때문에 經學 관련 文獻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尙書』 학 연구도 『韓國經學資料集成』 출판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尙書』 연구를 1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1980년대 5편, 1990년대 9편, 2000년대 29편, 2010년대(2011-2014) 13편 등이다. 2000년대 이후 연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尙書』 관련한 연구가 더 깊고 넓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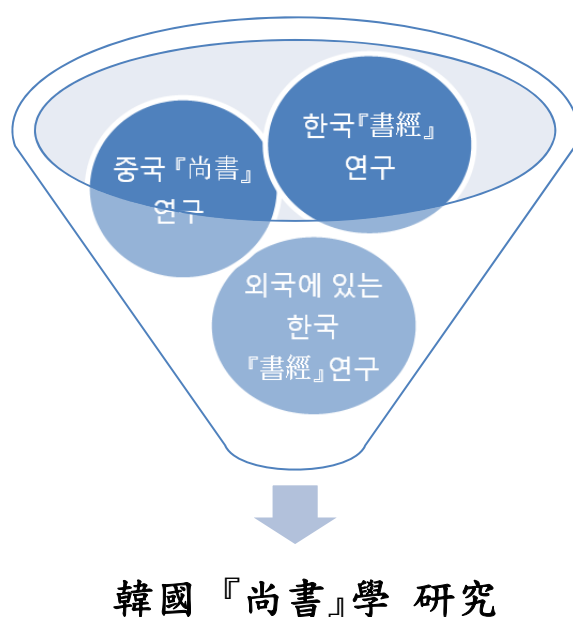
3. 미래 연구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尙書』는 적어도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었고 왕실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필수적인 교과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채침의 『書集傳』이 당나라의 『尙書正義』나 청나라의 『尙書註疏』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은 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리학이 학문의 주류였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자를 특별히 중시하였다. 주자가 직접 『尙書』를 주석하지는 않았지만 채침이 주자의 뜻을 계승하여 『書集傳』을 지었다. 이 『書集傳』은 중국 경학사에서 손꼽을 만한 중요한 책이며, 『尙書正義』와 더불어 『尙書』 연구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또 『書集傳』은 『四書五經大全』에도 선정되었고 이것은 조선에 수입되었다. 『四書五經大全』은 중국보다 한국에 끼친 영향이 더욱 컸다. 과거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四書五經大全』을 위주로 공부해야 급제할 수 있고, 선조 때 언해본도 역시 『사서오경대전』을 근거로 하여 만들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사람들이 『尙書』를 배울 때 채침의 『書集傳』이 거의 유일한 교재였으며 또 조선에서 가장 중시되면 텍스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 어느 『尙書』 관련 주석서도 『書集傳』의 위상을 대신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 등과 달리 『尚書』라고 칭하지 않으며 대부분 『書經』이라고 칭하고 있다. 『韓國經學資料集成』과 중국의 『四庫全書總目提要』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저술에는 『尚書○○○○』라고 이름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尚書』보다 『書經』또는 『書傳』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채침의 『書集傳』에 대한 수용과 변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조선시대 『尚書』연구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조선 유학자의 『尚書』관련 저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국 『書經』학’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한국에 있어서 『尚書』연구는 아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尚書』학 연구는 3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한국에서 중국 고전 『尚書』原典에 대한 探究인데 이를 ‘중국 『尚書』 연구’라고 칭하였다. 둘째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서경 저술을 중점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한국 서경학 연구’라고 이름하였다. 셋째는 한국 이외 다른 나라 학자들의 조선시대 서경 저술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 3가지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온전한 한국 『尚書』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尚書』原典의 探究는 台灣이나 中國에서 이미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게다가 『尚書』의 원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출토문헌이 점차로 발굴되고 연구되면서 그 연구 성과는 더욱 깊이를 더하고 있다. 반면에 韓國 書經學 研究는 각 방면에서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조선시대의 저술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한국 외의 한자문화권 국가 학자들이 모두 읽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쉽게 연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서경학 연구는 한국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尚書』는 임금에게 성군이 되는 길과 治國의 방도를 제시하는 정치 관련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유학자들이 『書集傳』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질의와 비판을 진행할 때 당연히 자신의 정치 사상과 주장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서경학 연구에서는 그 저술의 歷史背景, 政治와 당파의 內容에 대해서도 아울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韓國 書經學에 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1 譯本의 연구 (언해•구결•한글번역)

譯本의 연구는 고전의 역본과 현대 한글 역본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한자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문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외국의 문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先賢들은 경전을 읽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차자표음의 이두 및 한글이 발명한 이후의 口訣•諺解•懸吐가 그것이다. 이렇게 이두•口訣•諺解•懸吐를 방식을 사용한 책들도 넓은 의미에서 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 口訣의 경우, 학파에 따라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조선시대의 口訣•諺解•懸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서의 경우 주자의 영향에 따라 『사서』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경』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하겠다.

서양에서 『尚書』를 최초로 인용한 사람은 이탈리아 수도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이다. 그는 그의 『天主實義』라는 책에서 『尚書』를 여러 번 인용하였다.

프랑스의 제수이트 수도사 트리고(Nicolas Trigault, 1577-1629)는 1626년에 『尚書』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尚書』를 서양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여러 선교사가 불어•독일어•영어 등으로 번역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역본은 영국의 선교사 레그(James Legge, 1815-1897)와 스웨덴의 동양 언어학자 칼그렌(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의 영역본이다. 칼그렌의 역본은 伏生의 今文『尚書』 28편만 번역한 것인데, 公認 경전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레그의 역본은 今文과 僞古文『尚書』 58편을 모두 번역하였는데, 책 서두에 『尚書』 관련 해설이 있으며 본문에는 『尚書』 각 편의 내용에 대한 번역과 해석 뿐 아니라 주석도 상세하게 달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하여 서양에서는 아직까지 레그의 『尚書』 역본을 초

월한 것이 없다고 한다.

번역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 기호학자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가 『misreading』에서 “자각·독사와 텍스트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대문학이론에서는 ‘오독(誤讀, misreading)’은 새로운 창작의 과정이다. 독자들은 읽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경전 번역에서는 경전의 뜻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일한 한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 보아야 한다. ‘枕’자의 경우, 「康誥」편에서는 ‘정성(誠信)’⁷의 뜻이고, 「立政」편에서는 ‘심사의 심(審)’⁸의 뜻이고, 「盤中」편에서는 ‘침몰(沉沒)’⁹의 뜻이다. 중문학계에서는 경전에 대한 서양 번역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전에 대한 한글 번역본에 대해서도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전에 대한 번역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예를 들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겠다. 「酒誥」편 중 문왕이 사람에게 술을 과음하면 안 된다고 한 고계(告戒)문에서 “文王誥教小子有正有事”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의 ‘小子’에 대한 한글 번역은 모두 ‘젊은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주석서를 참조해보면, 沈大允은 『書經蔡傳辨正』에서 “小子通稱未老者也”라고 하여 ‘小子’를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을 통칭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을 따른다면 ‘小子’를 ‘젊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朴世堂은 『書辨錄』에서 “小子子弟之稱”라고 하면서 ‘문왕의 후예’라고 하였다. 또한 朴文鎬(1846-1918)는 『書集傳詳說』에서 “小子少, 去聲, 子之稱, 幼少之稱.(小子는 ‘나이가 적다’는 뜻이다. 去聲으로 읽는다. ‘子’라고 칭한 것은 나이 적은 어린 아이를 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해석을 따른다면 ‘小子’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서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글 번역본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한글 번역본은 18종¹⁰이다. 서양 역본은 금문『상서』나 고문『상서』

⁷ “天畏棗忱.”

⁸ “迪知忱恂于九德之行.”

⁹ “爾忱不屬.”

¹⁰

번호	역자	서명	출판사항	비고
1	金學主 譯	書經	서울:光文出版社,1967 年	한국 최초의 서경역본.
2	金冠植 譯	書經	서울:玄岩社, 1968	
3	李民樹 譯註	(新譯) 書經	서울:瑞文堂,1975	
4	禹玄民 譯	書經	서울:乙酉文化社, 1976	
5	權德周 譯註	書經	서울:平凡社,1976	

를 바탕으로 번역하였지만, 한국에서 발행된 한글 번역본은 채침의 『서집전』이나 諺解本을 위주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특징이 있다.

3.2 학파별 연구

중국 경학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단계는 대부분 朝代별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학 연구는 학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학파는 한국의 역사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의 가학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또 가학으로 형성된 학파는 당파로 확대하여 당시 정치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顯宗 때 乙亥 禮頌 문제로 宋時烈(1607-1689)과 尹鑄가 치열한 論爭을 벌였는데 이는 단순한 禮學 문제 뿐만 아니라 西人과 南人의 政治 갈등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 조선후기 北學派 학자인 朴齊家(1750-1805)·朴趾源(1737-1805)·金正喜 등은 使節團에 따라 청나라에 가서 중국 고증학의 대학자인 翁方剛(1733-1818)·阮元(1764-1849)·孫星衍(1753-1818) 등과 交遊하면서 후일에 朝鮮 유일한 고증학파가 되었다.

학파별 연구는 한국 경학(서경학) 연구의 경향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성과를 축적하고, 또한 鄰近 나라의 같은 시기

6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書傳	서울:明文堂, 1981	
7	백연옥·이기석 譯解	(新譯)書經	서울:弘新 홍신문화사, 1983	偽古文 『尚書』 의 全譯本
8	張基權[外] 譯	書經	서울:平凡社, 1984	權德周·全寅初의 解說 있음
9	車相轅 譯	新完譯書經	서울:明文堂, 1984	
10	柳正基 監修	新譯講讀四書 三經	서울:明文堂, 1989	
11	허경진 譯解	書經新譯	서울:청아출판사, 1991	
12	김희영 譯	書經新譯	서울:청아출판사, 1992	
13	李明鎮 姜明 官 編譯	(천하를 수수한 황제들) 서경	서울:자유문고, 1992	
14	이재훈 譯	서경	서울:고려원, 1996	
15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書 經集傳	서울:傳統文化研究會, 1998	
16	이기동	서경강설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	
17	儒敎文化研究 所	書經	서울:成均館大學出版部, 2011	官本 諺解本 『書傳』 의 번역본
18	장재봉 지음	백성이 의롭다 함을 법으로 삼다 (尚書新譯)	서울:좋은땅, 2013	盤庚부터 文侯之命까지 18 편만 번역했음.

나 비슷한 學風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3.3 문헌적 연구

전통 문헌학은 目錄•版本•校勘•輯佚•辨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청대 고증학을 수입하기 이전에 문헌학 연구가 본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증학적 연구 방법 또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成海應과 申緯이 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에 輯佚 연구를 진행했던 唯二한 학자라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집일 연구 내용은 주로 『시경』 분야였다. 또 丁若鏞은 고문상서의 辨偽 연구에 대해 뛰어난 성과를 내었다.

版本 연구의 일환으로 조선 서경학 판본 내용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김문식의 「『尙書知遠錄』 필사본의 원문 비교」¹¹, 김명환의 「『書經疾書』 규장각본에 대한 고찰」¹², 이은호의 퇴계 『書釋義』에 관한 논문¹³ 등이 있다.

문헌적 연구는 세심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만이 견지할 수 있다. 게다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문 산출의 양을 중시하는 현대 학술 환경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헌적 연구는 학문의 가장 기초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큰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佚失本에 대한 탐구는 더욱 가치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四庫全書存目』에 기록된 중국 고대학자 朱景元(생년미상)의 『經學隊仗』은 중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佚失되었지만, 中國 南通大學 張祝平 교수가 2011年 한국에 방문 연구를 왔을 때 韓國 中央圖書館에서 이 책을 발견하였다.¹⁴ 이 책은 崔致遠이 당나라 유학 이후 가지고 귀향했으며 나중에 그의 후예가 자신의 선조가 지은 책일 줄 알아 ‘崔致遠 著 『類說經學隊仗』’ 으로 간행하였던 것이다. 『類說經學隊仗』이 없었다면 朱景元의 『經學隊仗』은 아마도 영원히 佚失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一例를 볼 때도 문헌적 연구는 매우 필요하면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고 文物과 書籍의 보존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도 있었기에, 자국의 문물과 서적이 자국에서는 없어지고 주변 나라에 보존된 것을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 고적, 또는 외국에 있는 한국 고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상서학을 비롯한 경학 연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¹¹ 『다산학』, 10 호, 227-258 쪽, 2007 年.

¹² 『泰東古典研究』, 第 30 輯, 53-79 쪽, 2013 年.

¹³ 「퇴계(退溪)의 『서석의(書釋義)』에 관한 연구」, 『東洋哲學研究』, 第 64 輯, 9-42 쪽, 2010 年.

『朝鮮前期 書經 解釋 研究：陽村과 退溪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박사논문 2011 年 2 月.

¹⁴ 張祝平：「韓國藏本『經學隊仗』述略」, 『中國典籍與文化』, 2011 年 第 4 期(總第 79 期), 99-104 쪽.

3.4 경연과 과거시험 등 각 나라 비교 연구

중국과 한국은 經筵에서 임금과 조신들이 『尙書』의 내용에 대해 의론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예를 들면, 正祖는 『尙書』 관련 어제조문을 통해 『尙書』 58편을 둘러싼 今古文 論爭, 刪書之說의 문제, 渾天說의 내용, 田賦九登과 建官制祿에 관한 내용, 朱熹와 蔡沈의 경전 해석 차이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正祖가 문신에게 내린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문신들이 답안을 제출하였는데,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에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수록하였다. 이것과 수록되지 못한 답안을 검토해 보면 정조의 개인의 喜好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또한 정조의 『상서』 관과 다른 임금의 『尙書』 인식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시험에 대한 비교 연구도 큰 가치가 있다. 과거시험을 시행했던 나라인 한국·일본·월남·중국에서 『尙書』의 출제 비율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의 『尙書』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의 『尙書』학과 동아시아 각국의 『尙書』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각국의 특징과 장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 또한 한국의 경학 및 서경학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4.결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高宗은 1894년에 開化 改革 政策을 시행하면서 과거시험을 폐지하고 서양식 학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옛날의 유생처럼 經書만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관직과 재부를 얻는 경우는 없게 되었다. 이처럼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경서의 위상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학의 연구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학자 팔머(Richard E. Palmer, 1933-)의 유명한 저술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Hermeneutics)』에서 “경전은 도덕과 진리를 담은 容器이다.”라고 하였다¹⁵. 학술이론이나 새로운 思潮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마련이지만, 동양사회에서 수 천 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친 유가경전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존재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유가경전의 내용과 사상은 과거 뿐 아니라 여전히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尙書』「康誥」편에서 政府 官員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를 내린 부분이 있다. “백

¹⁵ The scriptural text in the Enlightenment, for instance, is the vessel of great moral truths.

성의 좋은 여론과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함부로 政策를 내리지 말며, 전체 나라에 실제로 좋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마라”¹⁶ 이러한 한 예를 보아도 『尚書』는 현대인에게 교육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尚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특히 정치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전통시대 동아시아 각국의 학문 양상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尚書』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측면을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고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다. 또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에 대한 고찰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탐구도 아울러 진행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¹⁶ 不率大戛，矧惟外庶子訓人、惟厥正人、越小臣、諸節，乃別播敷，造民大譽，弗念弗庸。